

보건협회와 업무협정 체결



안 전협회(회장 이홍지)와 보건협회(회장 윤임중)는 6월 8일 보건협회 회의실에서 양기관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기술교류와 업무협력을 위한 협정식을 갖고 양 기관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양 협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상호기술 향상과 대 사업장에 안전보건기술을 종합 지원하고, 안전보건분야의 공동기술개발로 산업현장의 재해 및 직업병 감소와 양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안전협회 새로운 CI 공포



안 전협회는 그 동안 사용하던 무궁화를 형상화한 심벌마크에서 21세기에 맞게 친근한 이미지의 심벌마크로 새로이 변경했다.

새로이 탄생한 심벌마크는 7월 6일 CI 공포식과 함께 협회를 대변하는 매개체로 널리 알려진다.

원형을 기본으로 지구와 무재해를 표상하는 이번 심벌마크는 안전모를 쓰고 웃는 사람의 얼굴이다. 초록의 단색으로 안전함, 풍요로움, 인간의 생명을 표상한 것에서 친근함을 느끼게 하며, 중앙의 태극문양은 우리 나라, 나아가 세계의 안전을 위해 안전등을 비춰 안전보국을 만들어 가는데 안전협회가 앞장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실천 결의대회



삼 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결의대회를 통해 안전보건 의식 고취와 지속적으로 무재해의 사업장을 지켜 갈 것을 다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장병조 공장장 이하 전직원과 구미지방 노동사무소 박중걸 소장, 안전협회 구미지회 성기철 국장, 한마음협의회 위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구미사업장에서는 11대 기본수칙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위해 현수막 설치, 포스터 및 홍보물을 자체 제작·배포하여 11대 기본수칙 홍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국 현장 안전진단 설명회

안전협회는 중국의 Northpole China LTD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난 6월 18일 이흥지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과 Northpole China LTD 이윤재 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진단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Northpole China LTD는 최근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고, 신소재에 의한 상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하고 있고, 중국의 동안 공장 및 조관 공장도 준공하여 정상가동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섬유제품 제조업으로 코팅 Line에서 정전기 등에 의한 화재 발생위험이 항시 잠재되어 있으며, 염색 작업장의 건축물 부식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어 안전협회로부터 전기, 화공, 건축분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



안전협회 부산지회 안전인체육대회 실시



부산지회(김성철 국장)는 협회 회원 및 관내 안전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결의 대회 및 친선체육대회를 가졌다. 체육행사에 앞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결의문 낭독 및 산재예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후 행사로 축구, 족구, 공차고 달리기 등 다채로운 체육행사를 통해 관내 안전관계자의 정보 교류를 위한 친선의 장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산지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안전관계자들로 하여금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안전협회 중앙회 사무실 이전 기념 기원제

안전협회(이홍지 회장) 중앙회는 지난 5월 27일 부천에서 서울 구로구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안전협회의 발전과 산업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을 위한 기원제를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홍지 회장을 비롯해 김영수 노동조합 위원장 및 흥범표 감사, 김문영, 구해운 이사 등 안전협회 중앙회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노·사가 따로 없었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에서 안전협회, 나아가 우리 나라의 안전에 서광이 비치는 것을 느낀 한마당이었다. 

